

“필환경 시대를 이끌 미래의 친환경 전문가 육성” 테라사이클, 2020 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성료

- 테라사이클, 미래의 친환경 전문가 육성을 위한 2020 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2020 Winter Terracycle Fellowship Program’ 성료
- 국내외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테라사이클의 환경교육 및 참여 학생 스스로 교내 업사이클링 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 진행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



<보도자료 사진=테라사이클 제공>

(2021 년 1 월 12 일)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기업 테라사이클이 미래 세대의 글로벌 친환경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인 ‘2020 Winter Terracycle Fellowship Program’을 성료했다.

2020 Winter Terracycle Fellowship Program 은 환경 문제에 대한 미래 세대의 참여를 제고하고, 업사이클링을 포함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테라사이클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 2020 년 8 월 여름 인턴십을 시작으로 이번 겨울 인턴십까지 2 회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 년 12 월 21 일부터 2021 년 1 월 4 일까지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친환경 전문가를 꿈꾸는 국내외 재학 중인 고등학생 12 명이 참여해 2 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다.

테라사이클은 환경 교육 및 재활용 산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여 학생은 직접 기업의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보고 교내에서 실행 가능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과자 봉지를 모아 가방으로 만들고, 고장난 자전거를 교내 조형물로 업사이클링하는 방안, 교내 폐지를 학용품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방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테라사이클 코리아 관계자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높은 열정과 이해도에 매우 감탄했다"며 "테라사이클은 앞으로도 청소년 인턴십을 포함해 업사이클링 산업의 선도 주자로서 미래 세대에게 글로벌 친환경 비즈니스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테라사이클은 폐기물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1 개국에서 주요 소비재 및 제조 기업과 협업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테라사이클 코리아는 지난 2017 년 국내에 출범해 아모레퍼시픽, 한국 코카-콜라, 이마트, 해양환경공단 등의 다수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재활용 솔루션을 제시하고 국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끝>

###

About TerraCycle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하는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이다. 한국을 포함한 21 개국에 진출해 재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테라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terracycle.com/k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